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Book적 Book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04월 27일( 화요일 ) / 장 소 : clc 그룹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송**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주제: 바이러스 ( 페스트 / 알베르 카뮈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줄거리를 함께 정리</li> <li>각자의 인상깊었던 장면 이야기하기</li> <li>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 나누기</li> <li>책의 내용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해보기</li> <li>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li> </ol>							

2021년 04월 27일

참가자대표 : 송\*\*

## 1. 책의 줄거리를 함께 정리

알제리 해안에 위치한 작은도시 오랑시에서 쥐가 죽어나간다.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죽은 쥐들의 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자 하나둘씩 불안감을 느낀다. 살아있는 쥐가 거의 사라진 도시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한명한명 죽어가기 시작한다. 의사인 리외는 이 병을 '페스트'로 확신하고 시청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되고 프랑스 당국에서 페스트를 선언하고 오랑시를 봉쇄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도시 폐쇄 초기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예기치 않은 이별 등의 이유로 폐쇄 조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밖에 있는 가족들이나 연인과 만나려고 방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자 시민들은 현실에 적응해 나간다. 폐쇄가 장기화 되면서 도시에 공급되는 물자가 부족해 물가가 치솟는다. 이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져 시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시민들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먹고사는 문제에 더 매달리거나 종교에 의존하게 된다. 그럼에도 보건대라는 시민 봉사단을 꾸리고 페스트와 죽음에 투쟁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몇 개월 뒤 갑작스럽게 페스트는 물러간다. 사망자 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치솟았던 물가도 떨어지고, 효과가 별로 없던 백신도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봉쇄가 풀리고 오랑시에는 페스트를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들뜬 사람들과 페스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게 된다.

최선을 다하지만 노력의 한계를 느끼는 의사, 자원 봉사대를 꾸려 페스트에 맞서는데 앞장서는 시민, 전염병이 신의 뜻이라고 설교하지만 환자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직자, 페스트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봉쇄된 도시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등의 이야기로 연대의 중요성을 알게 해 주는 내용이다.

## 2. 각자의 인상 깊었던 장면 이야기하기

한\* - 사랑을 선택하여 마을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였던 랑베르에게 리외는 끝까지 자신의 아내 또한 마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이다. 리외 스스로도 랑베르의 말을 마음속으로는 이해하는 장면으로 이해되며 이는 오직 원칙대로만 살아가는 리외에게 있어 매우 인간적이고 예외적인 사실로 비추어졌다.

채\* - 한 늙은 경비원이 타루에게 “아! 차라리 지진이면 좋겠어요! 지진은 한번 흔들리고 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사망자와 생존자를 세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병은!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도 마음으로 병을 앓게 한다니까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 대사는 전염병이 계속되는 상황 속 지친 마음과 울분이 잘 느껴졌다. 전염병이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함과 심리적 압박감은 마음의 병을 앓게 하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 같다. 코로나가 거의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나도 끝나지 않는 상황에 많이 지쳐있었는데 이 대사를 보니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다.

지\* - 파늘루 신부가 페스트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말한 이후에 오통 판사의 어린 아들이 페스트로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이 나온다. 판사의 아들이 죽고 리외는 파늘루 신부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 페스트인데 저 어린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묻지만, 신부가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 대목에서 평소보다 심오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질문하자면, “질병이 무엇일까?”, “신은 왜 형벌로 질병을 선택했을까?” 등. 나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 정수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책 속에서 얻은 깊은 질문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지\* -부적절한 방법이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된 랑베르가 '혼자만 행복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라고 마하며 오랑 시에 남아있겠다고 다짐한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

다. 다만 부끄러움 때문일지라도 개인적인 사랑을 중시하던 사람에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 감동적이었고, 나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랑베르가 대단해보였다.

### 3.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점 나누기

한\* - 페스트라는 질병이 퍼져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마치 우리의 현실세계와 겹쳐보였다. 책을 읽는 내내 정도의 차이는 존재할망정 현재와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며,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만을 돌아보며 행동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시켜 주는 데에 이용하며 이를 즐긴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각기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 책에 흥미를 복돋아주는 요소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보건대'라는 민간 보건 단체를 만들어 낸 것이고, 이 협동이 바로 페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을 보며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요소란 바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협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채\* -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해서 더욱 공감하면서 읽었다. 전염병과 같이 모두가 겪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료진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읽었다. 훗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갖고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지\* - 이 책은 나의 머릿속에 "코로나 19로 초래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현실에 안주하며 일상에 적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꿈은 '질병을 정복하자.', '세상을 돕자.'이지만, 나 또한 '페스트'에 등장하는 '집에 불을 지르며 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진배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과연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마음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위해 노력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감사한 책이다.

지\* - 이 책을 읽고 나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 한명한명의 입장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을 읽기 전의 나는 모든 상황을 오로지 나의 입장에서만 보기 바빴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 어떤 상황이던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안에 다른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꼭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된 삶이 아니더라도 다른사람들의 입장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이었다.

### 4. 책의 내용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어 생각해보기

• 만약 자신이라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보건대에 들어갔을까?

한\* - 나는 보건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굶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한 보건대의 힘이 닿지 않는 페스트 이외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

채\* - 나는 보건대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6년간 간호사라는 꿈을 키워오면서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다.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도 최전방으로 가시는 의료진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빨리 간호사가 되어 위기의 상황이 오면 망설임 없이 나서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지\* - 만약 내가 페스트 속의 상황에 있다면, 나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보건대에 자원했을 것이다. 나의 목표는 "세상을 돕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내 힘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오랑시'라면 그곳을 시발점으로 더 많은 곳에 나의 힘이 닿기를 바란다.

지\* - 나는 보건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며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

걱정과 동정을 하겠지만, 그들을 걱정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보건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같다.

• 랑베르와 리외가 갈등중인 상황일때, 자신은 어떤 입장을 지지할 것인가?

한\* - 랑베르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원리원칙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가 현실에서도 존재할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나무랄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단 1분 1초라도 이어나가고 싶다.

채\* - 리외의 입장을 지지한다. 전염병처럼 몇몇 사람만 겪는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겪는 문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라는 예외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연대의식은 사라져 전염병 종식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리외의 입장을 지지한다.

지\* - 리외를 지지한다. 우선,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기에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도 있다. '페스트'에서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에 비추어 생각하면, 연대하여 하나의 공통된 목표인 "페스트 종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개인(리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이성적인 개인', '집단' 속의 '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리외의 입장을 선택하였다.

지\* - 랑베르의 입장을 지지한다. 물론 리외가 페스트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모두의 이익보다 나 하나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페스트의 종식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랑베르의 입장을 더 공감할 수 있었다.

•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무엇에 의존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까?

한\* -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그 겨울에 끝엔 봄이 오듯, 나 또한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 대한 믿음과 그 확신을 바탕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현재의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채린 -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할 것 같다.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는 문제이니 서로 의존하며 이 시기를 이겨낼 것이다. 개인방역과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 - 엄청난 절망이 우리의 삶을 삼킨다면, 나는 '종교(하나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 같다. 지금도 힘들 때, 기도를 통해 극복하는 편인데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면 여전히 '신'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영위할 것 같다.

지\* - 사람들의 소식에 의존할 것 같다. 막 페스트가 시작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보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오랑시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19시기에 인터넷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소식 등을 듣는 것이 큰 위안이 될 것 같다.

## 5. 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 랑베르의 말( 106p / "선생님은 이성에 따라 말씀하시고 추상의 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 어떤 의미일까?

한\* - 원리에 입각한 결론과 결과만을 바라보며 대처하는 리외에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랑베르의 심정이 드러나는 구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꼭 저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 - 랑베르는 상황마다 유연히 대처하는 융통성을 바라는, 혹은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리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둘이 분명한 가치관 차이를 갖고 있

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 - 리외는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는 이성이고 냉철한 사람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 갈등을 묵인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반면, 랑베르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의 과정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리외가 단지 '종식을 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면, 랑베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종식을 맞이하는 것'을 중요시 여길 것 같다. 그러므로 랑베르가 말한 추상적인 것이란, '과정에서의 중요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코타르가 마지막에 총을 쏜 이유는?

해설자에 따르면, 코타르는 페스트의 인격화 된 존재라고 한다. 우리는 코타르를 통해서 페스트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데 부정과 파괴, 절망과 이기심 등이다. 코타르는 끈임없이 자신을 해치려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사귀고, 부당한 일에 동의하며 현실세계에 안주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만족스러워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총을 쏜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시금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서 느낀 분노를 표출하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 파늘루신부는 페스트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라고 말한다. 이때 사람들이 지은 죄란 무엇일까?

페스트가 막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우선순위와 생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들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그 상황들 속에 페스트의 종식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보건대로부터 시작된 다른사람들을 위한 행동들로 인해, 점점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게 되면서 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책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가장 큰 키워드는 '연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죄를 지은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연대하지 않은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Book적 Book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05월 11일( 화요일 ) / 장 소 : clc 그룹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송**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주제: 환경 ( 침묵의 봄 / 레이첼 카슨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li> <li>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 나누기</li> <li>책의 주제와 연관된 제도나 사건 등을 찾아보기</li> <li>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li> </ol>							

2021년 05월 11일

참가자대표 : 송\*\*

## 1.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

이 책은 한마을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보존과 그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그 마을은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많이 오고가던 마을이었는데, 장수풍뎅이를 잡기 위한 하얀 분말이 뿌려지고 나서부터 새들과 소, 양들이 사라져가는 죽음의 마을로 변한다.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로 가득 차야했던 마을의 봄은 침묵만이 감돌게 된다. 호수나 밭의 작은 벌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생명체 내에 축적되고, 해충들은 약에 대한 내성이 점점 강해져 수를 없애기가 힘들어진다. 작가인 레이첼 카슨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입증하면서 살충제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그로인해 인간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 2.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점 나누기

한\* - 어떤 이유에서 과거 역사에서의 다양한 자연파괴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또 다시 반복된 것 일까하는 생각이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들었다. 계속되는 환경 파괴와, 동물들의 죽음 속에서 정부가 근시안적 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채\* - 인간의 무지함에 큰 화가 났고 그로인해 고통받는 동식물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떤 행동이든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옴을 느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생각한 뒤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 -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사에 대해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제대로 배워야 함을 깨달았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이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모르면서도, 미완성된 것이나 진배없는 살충제를 마구 사용한 대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 물체가 인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다.

지\* - 1940년대부터 시작된 엄청난 양의 살충제, 제초제 등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202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허탈함을 느꼈다. 환경이 더 심하게 파괴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얼른 해야한다는 생각을 했다.

## 3. 책의 주제와 연관된 제도나 사건 등을 찾아보기

- 환경보존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한 사례 :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샤론 래브처크>는 살충제 사용에 대한 비참한 결과에 대해 알기 시작한 후로 살충제의 사용을 저지시키는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책 ‘침묵의 봄’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 또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살포된 DDT, BHC등과 같은 살충제와 제초제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썼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살충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분노를 가지며, 더는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살충제의 사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많다.
- 변화된 제도나 법: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로 ‘화학물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해물질 취급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렸다. 법 시행전 설립된 공장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낸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 위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사례  
가습기 살균제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2011.04~)

- 1) 환경부 살생물제 전수조사(2016년 5월 3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 막고자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과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 기준, 표시 기준 등도 강화/ 가습기 살균제 물질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에 사용 금지에 대한 개정안/ SK케미칼이 원료를 개발하고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됨)
- 2) 다른 생활용품에 대한 불신(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신뢰도를 낮추는 걸 넘어 바닥을 치게 만드는 데 크게 일조함, 이후로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짐, 이 사건을 기회 삼아 수많은 공포 마케팅이 탄생 + 케모포비아)
- 3) 옥시 제품 불매 운동 확산  
냉매제 - 프레온 가스

#### 프레온 가스[freon gas]

: 메테인, 에테인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수소 부분을 플루오린(불소)이나 다른 할로젠 원소로 치환한 물질이다.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용제나 발포제, 스프레이나 소화기의 분무제 등으로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레온가스 [freon gas] (두산백과)

초기에는 인체에 무해하며 잘 타지 않는 물질로 주목을 받았지만, 요즘은 인체에 유해함에 대해 새롭게 알려졌고 특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다.

#### 4. 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 살충제로 인한 동식물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 - 잊을 수 없는 교훈. 다시는 반복 되어선 안 될 우리 역사의 과오이다. 이 희생으로 인해 인간에게 이로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존재 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한 발자국과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목숨은 비교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 - 인간을 향한 자연의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꾸준히 경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사용하다가 동식물들의 희생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위험을 알아차린다. 동식물들의 희생 다음은 인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이 경고를 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자연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그 경고를 초기에 알아차려 해결해야한다.

지\* - 마지노선.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으며,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양심을 숨기며 자연을 괴롭혔다. 결국 그 완악한 행위의 결과는 모두 인간에게 다시 돌아왔고, 인간의 삶을 좀먹으며 서서히 망가뜨렸다.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또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라도 자연을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 인간을 향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한다.

- 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한\* -요구하는 자들과 요구 받는 자들의 차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빠른 시간 내,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정부를 옥죄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고위층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향한 마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채\*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는 해보다는 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는 쪽으로 하다보니 자연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 -

지\* -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 혹은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냐로 나



놓 수 있을 것 같다. '일'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 난 뒤의 상황을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이나 개인적인 욕심들을 떨쳐내지 못 하는 것 같다.

- 살충제의 사용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한\* - 하늘을 아름답게 채워주는 새들과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고마운 가축들 등 동식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얻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살충제의 사용으로 동물과 식물, 토양뿐 아니라 인간까지 큰 피해를 받았고 다시는 복구시킬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속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그저 교훈 뿐이라고 생각한다.

채\* - 편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살충제의 사용은 해충으로 인한 농부들의 고생, 인간들의 불쾌함과 불편함 등을 해결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편리함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살충제의 사용은 곤충의 내성 증가, 동식물의 죽음, 인간의 건강 악영향을 넘어 죽음을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얻게 된다.

지\* - 편하고 쉽게 벌레 여러 마리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장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동식물 몸에 살충제 성분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사용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살충제가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살충제가 살인제가 될지도 모른다.

지\* - 인간의 이기적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더 현명하고 이득이 많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살충제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용 후에 우리가 되돌려받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사용이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지를 조금은 정확히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며 인간의 이기적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Book적 Book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05월 25일( 화요일 ) / 장 소 : clc 그룹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송**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주제: 인권 (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 헤더 모리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li> <li>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 나누기</li> <li>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며 느낀점</li> <li>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li> </ol>							

2021년 05월 25일

참가자대표 : 송\*\*

## 1.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

어느 날, 나치는 모든 유태인들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각 유태인 가정에서 무조건 한 명씩 나치군을 위해 일을 하라고 강제징용 명령을 내린다. 주인공인 '랄레'는 부모님, 형 부부, 조카,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인데, 부인과 자식을 둔 형 대신 미혼인 자신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기차칸에 몸을 싣는다.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채 가족을 이송하는데 쓰였던 기차칸에서 몇일간 이동을 하게된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였고, 랄레는 '32407'이라는 번호를 부여받는다. 짐은 다 빼앗기고, 강제 샤워를 한뒤 삭발을 당하고 맞지도 않는 더러운 옷과 나무신발을 적당히 찾아 신은 랄레는 다른 수용자들처럼 몇일동안 굶은 배를 움켜 잡고 피곤에 잠을 청한다. 그다음날부터 지붕수리 업무에 배정되어 노역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날 랄레는 나치군인들이 수용자들을 버스에 가둬두고 처참히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대로 기절하게 된다. 쓰러진 뒤 한동안 깨어나지 않아 시체수레에 실려갈 뻔했지만, '애런'의 도움으로 시체수레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일주일만에 깨어난 랄레는 '페판'이라는 문신가의 보살핌으로 회복하게 되고, 그의 제안으로 문신가의 일을 하게 된다. 문신가가 하는 일은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의 신상을 확인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다섯자리 숫자를 팔에 새겨주는 업무였다. 페판의 조수로 일하던 어느날, 몇명의 여자 수용자들의 문신이, 문신이 아닌 도장으로 찍혀있어서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이 일을 들키면 곤란에 처할 것을 직감한다. SS군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4562' 번호가 찍힌 여자 수용자가 온다. 간신히 작업을 마친 랄레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 그가 보낸 작은 미소에 희미한 미소가 되받는다. 하지만 이 일 때문인지 몇 주뒤 페판은 사라지고, 랄레가 이 수용소의 문신가가 된다. 랄레가 이 소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 '버렛츠키'는 연애편지를 쓸 수 있도록 종지와 연필을 준비해 주고, 그녀의 이름이 '기타'라는 걸 알게 된 랄레는 수용소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한다. 기타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랄레는 몰래 약을 구해 기타를 살리고 다소 업무가 편한 곳으로 배정하게끔 도와주는 등 그녀를 위한 행동들을 한다. 그러던 중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3년이나 흘렀고, 여기저기에서 수상한 소문과 움직임들이 목격된다. 이 후 몇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소란스레 서류를 없애고, 러시아 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문이 돈다. 결국 여자 수용자들은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랄레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기타를 빼내보려고 하지만 결국 둘은 이별하게 된다.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는 중에 기타는 우여곡절 끝에 '다나'와 함께 탈출을 하게 되지만,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로 인해 다나는 중간에 낙오되고 결국 기타만 살아남아 고향에 도착하게 된다. 기타의 소식을 알수 없는 채로 랄레 또한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게 되고, 이번에는 통역업무에 배정된다. 이 업무는 마을을 다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수행할 수 있었는데,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랄레 또한 탈출을 해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거의 관리가 되어있지 않은 고향집에는 여동생이 남아 있었다. 랄레가 수용소로 옮겨지기 직전, 그의 부모님 또한 나치군에 끌려갔고,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제 랄레가 찾아야 할 사람은 그가 사랑 기타라고 생각해, 기타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알려준 그녀의 성과 수감번호로 그녀를 찾아낸다. 둘은 극적으로 다시 재회하게 되고 결혼에 성공한다.

## 2.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점 나누기

한\* -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것이고 죽음을 원했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었을 텐데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어 나가는 랄레가 존경스러웠다.

채린 - 나치의 비인간적 행위와 잔인한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희망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끈기있게 서로를 돕고 삶을 붙들고 있는 건 저항 행위이며 영웅이라고 하는 랄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지\* - 수용소로 끌려온 사람들 팔에 그곳에서의 이름이나 다름없는 문신을 새기는 일을 통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특히나 인상 깊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싹 리셋하고 식별할 수단 쯤 되는 번호로 불리는 모습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나치의 생각

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식별번호, 고유번호라 하면 공장의 로봇, 기계 정도가 연상된다. 한 사람의 추억과 꿈이 담겨있을지도 모르는 이름 대신에 번호를 매겨 사람을 구분하는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 받지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도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주인공이 더욱 대단해 보였다.

지\* -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랄레의 행동을 보면서 존경심도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답답함도 많이 느끼게 해 준 책이었다. 하지만 많은 일들과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것 같은 랄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3.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며 느낀점

한\* -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노동력이 되어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찾아보아도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업주들은 외국인들이 후진국이라는 이유와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제는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국가에서 왔다는 사실이 그들을 차별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바꾸어주지 않는다. 그들을 그들 자체로 존중하며 우리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고 인식하여야 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 - 인권 침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으로 하는 직접적 차별만을 생각했었다. 하지만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인권 침해는 물리적 차별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인권 침해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귀머거리 삼 년, 병어리 삼 년'처럼 대부분 관용어구나 속담들 속에 장애인 비하 표현들이 있다.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다. 장애인 비하 표현은 장애와 부정적 이미지를 연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들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장애인은 이런 말들이 작은 폭력으로 다가오며 그런 표현은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직접적 모욕보다 더욱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해를 미친다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련된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서 인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지\* -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 우리나라 곳곳에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 태형 제도 재실시, 재판 없이 바로 처벌, 황국 신민화, 창씨개명, 인적 자원 수탈(전쟁터로 내보내기, 강제 노동, 여자 이용-위안부 등) 등을 통해 조선인들이 폭력, 억울함 속에서 고통 받아야 했다. 태형 제도란, 사람을 엎어 놓고 곤장으로 때리는 벌을 말한다. 본래 이 제도는 너무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라는 평이 많아 갑오개혁(1894) 때 폐지되었지만, 일제가 1912년에 다시 등장시켰다. 그리고 일제 때의 태형 제도는 헌병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었다. 또한 재판 없이 바로 처벌을 했는데, 많은 억울한 조선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았다. 황국 신민화라는 명분으로 한국어 금지,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것 금지, 역사를 왜곡하여 가르치며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다. 조선인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창씨개명을 강조했다.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으며, 취직 등 사회생활 역시 힘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내보내고 외국으로 파견해 가혹하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으며, 여자들은 강제로 징집되어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갔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고마움 없이, 편하게 살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그들이 바라던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그러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 누구보다 노력하며 우리나라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 -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내편과 상대방을 나누는 순간, 또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순간부터 인권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저마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상기하고, 개개의 특성을 인정해 주는 일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 같다.

#### 4. 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 사람들은 왜 자신의 삶에 안주하게 되었을까?

한\* -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고통 앞에선 그보다 작은 고통에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는 것이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주인공인 랄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낀다고 얘기하였다. 이처럼 아우슈비츠에 감금되었던 이들에게는 죽지 않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에도 감사를 느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채\* - 나치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들은 수용소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죽이고 반항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나치는 서슴없이 죽였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용자들은 그저 숨죽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살기 위해 현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 - 수용소에서의 삶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어쩌면 저항할 힘이 다했기 때문에 삶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적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익숙해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다. 수용소 내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는 듯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합리화시킨다면 결코 삶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및 정당화/합리화하려는 마음 때문에 삶에 안주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 - 물론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하는 나치를 상대로 탈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의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한다. 책에서는 ss군인들이 제안한 축구경기를 하며 수용자들이 약간의 해방감을 만끽했다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을 보며 정말 사소한 것이어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더 빠르게 안주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 전쟁 후, 명령만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처벌해야 할까?

한\* -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회피적인 핑계는 없을 것이다. 반인류적인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처벌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자신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병사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아 상부에 맞섰다면 그리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이 명령을 정당화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채\* -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혹은 반대의 의견이었을 수도 있다. 명령에 반대했다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분명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신념을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명령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살인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학살에 동조한 것이고 공범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움직인 사람도 처벌해야한다.

지\* - 처벌의 깊이가 알겠지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에도 양심을 지키면서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함은 확실하다. 그들 또한 전범자이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살인을 교사한 자와 살인을 실제로 행한 자, 둘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명령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지\* - 나는 생존자들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자의로 명령을 따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끝나고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처벌을 해야하긴 하지만, 적당한 선을 잘 정해서 해야할 것이다.

-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정신질환은 후세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므로 생존자들에게는 전쟁 이후의 삶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원이 아닌 처벌만을 위주로 생존자들을 대한다고 생각

했다.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한\* - 인권 침해가 맞다고 생각한다. 생존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상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일반인들처럼 살아가기까지 그들의 정신적/신체적/물리적 보상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생존자의 앞으로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채\* -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반인류적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 그 싹을 잘라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머지 생존자들이 다시 일상생활에 적응해 빠르게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지\* -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또, 전쟁으로 일어난 범죄는 모두가, 특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외면한다면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는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 - 자의던 타의던 수용소에서 노동을 한 사람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와 정신질환을 많이 겪게된다. 그만큼 그들도 마음의 고통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나라를 위해 노동을 한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품어주고 남은 생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또 한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존자들을 위한 치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Book적 Book적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06월 01일( 화요일 ) / 장 소 : clc 그룹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이**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송**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주제: 사회적 약자 ( 도가니 / 공지영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li> <li>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 나누기</li> <li>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li> <li>제목이 뜻하는 바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기</li> </ol>							

2021년 06월 01일

참가자대표 : 송\*\*

## 1. 책의 내용을 함께 정리

주인공 '강인호'는 사업 실패로 광주에 있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가게 된다. 무진시에 있는 '자애학원'이라는 사립학교인데,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학교이다. 무진시는 안개가 자주 생겨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강인호는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뇌물을 줘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첫날부터 여자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꺼림직함을 느낀다. 다음날, 그의 반 학생 '연두'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는 연두를 찾아 나선다. 그러다 행정실장 이강복과 마주쳐 괜한 참견이라고 핀잔을 듣게 된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수업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그는 자애학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후, 그는 교장과 행정실장 생활지도교사의 성폭행 및 구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그는 연두 어머니께 알려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경찰과 교육청 시청 공무원들과 자애학원 관계자의 유착관계만을 확인하게 되고, 누구한명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이를 알려 각종 언론사와 서울의 방송국, 국가 인권 위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수화 통역사, 인권 운동센터 간사와 함께 성추행을 당했던 아이들의 사건 정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다. 그러자 자애학원 선배들의 성폭행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이 교장과 행정실장, 생활지도교사를 연행한다. 그러나 돈, 권력으로 교장 및 행정실장과 생활지도교사는 피해 학생 부모들의 합의를 이끌었다. 결국 강인호는 해고되고 판사는 교장과 행정실장, 생활지도교사에게 전과가 없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며,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이강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강복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보현 징역 6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 2.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 나누기

한\* - 이런 비인간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책을 전부 읽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인간의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동시에 그 아이들이 2021년 현재에는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장애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으며,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을 피하고 묵인하려고 했던 정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또한 현재에도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고 있을 그들 속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채\* - 우선 이 말도 안되는 비인간적 행위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과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사건의 반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책의 내용만 해도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보다 더 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과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쳐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더러운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화가 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 의해 고통받은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내가 다 미안해졌다.

지\* -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쓰였다는 것이 놀라웠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배웠는데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 직원이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린 아이들로부터 성을 착취하며 유린하는 모습에서 화가 났다.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연대하여 함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 입으로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못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지\* - 이 책은 항상 의문을 품어왔던 우리나라의 법에 대해서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해 주었다. 성범죄만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데, 아이들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일어난 이런 잔혹한 일이 부모가 합의를 해주었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형량을 준 것이 너무나도 화가났다. 그와 동시에, 가해자들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지금 내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간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 3. 책을 읽는 도중에 가졌던 의문점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 만약 내가 강인호라면, 침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한\* -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라도 싸우지 않을까? 단순 금전적 횡령 수준의 일이 아닌 한 아이의 생명을 몰아붙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내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일이라 나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도, 가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엔 나의 가족 또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에는 sns가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의 잔혹성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 같다.

채\* - 나는 싸울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일에 나서는 정의롭고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인데 침묵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격박탈이고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들의 보호자는 선생님이니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우는 것을 택할 것이다.

지\* - 나는 싸울 것이다. 솔직하게 큰 고민 없이 싸우겠다고 결심은 못할 것 같다. 나의 가족들의 생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그 속에서 나의 주관을 지키며, 내 일도 아니고 심지어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내 속에 있는 정말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조금은 힘들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 - 솔직히 말을 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 일단 이 책에서 강인호는 돈이 별로 없다.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계가 위태위태하고, 폐렴이 있는 딸도 있기 때문에 얼른 자리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폭행과 성범죄를 당한 것과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화가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영화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했을 것 같다.

- 성범죄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할까?

한\* -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소시효는 사건이 시간이 많이 지나, 증거의 보존이 어렵고 처벌 효과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취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이다. 현대 과학 수사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시간이 지나 해결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안락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주는 악독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채\* -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힘겨운 일이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도뿐만 아니라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 폐지해야 한다. 수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끝나버려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린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피해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과 그 주변사람들의 억울함을 알아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를 강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억울하게 형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합의 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연령을 13세에서 더 늘려야 할까?

한\* - 나는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적어도 만 16세로 올려, 만약 미성년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법안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미성년자를 성 관련 범죄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N번 방 사건에서처럼 중/고등학생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지는 현세대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중 70%이상은 10대이다. 온라인 이용이 증가하면서 10대의 그루밍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연령을 더 늘려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 장애 아동의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하고, 오히려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미성년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어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제한을 만 18세로 올리고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성폭행의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시기의 학생들은 주변인들에게 휘둘리는 경향이 아주 어렸을 때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그런 점을 고려하여 그들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에게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했을때도 이런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4. 제목이 뜻하는 바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기

한\* - 나는 처음에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도가니라는 용어는 그릇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을 모두 읽은 후 이에 대해 찾아보았더니 국어사전에서 도가니는 흥분이나 감격 따위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었다. 이를 보고 드디어 제목이 이해가 갔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지른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여 제목으로 지은 것이었다.

채\* - 책을 읽는 내내 그들의 비인간적 행위와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분했다. 화가 주체할 수 없어 여러 번 중단하기도 했다. 책을 읽고 나서 관련 글과 영상을 보면서 도가니의 뜻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뜻을 보니 왜 공지영 작가가 도가니를 제목으로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도가니라는 제목은 이 사건을 본 공지영 작가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 - 나는 문학 분야에서 쓰이는 말인 '문화 융합의 과정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도가니' 내용을 설명하고 싶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데에 습관적인 우리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나를 반성할 수 있었다. 또, 우리 모두가 융합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지\* - 나는 공지영 작가와 작품을 접한 사람들의 상태보다는, 책에 등장하는 가해자들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항상 흥분으로 들끓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한 혐오의 감정과 불쾌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것 같다.